

# 건축공간 인식에 대한 미학적 구성범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positional Scope of Aesthetic Cognition in Architectural Space

이용재\* / Lee, Yong-Jae

### Abstract

The study on architecture can be started with the aesthetic attitude which cognizes it as the art of the space. Architectural space as the subject of the aesthetical study, however, has been ignored such a long period though it should be centered of the whole architectural theory. Even it has not been dealt with independently but just only as a part of aesthetic or artistic field. Also it is true that academic approach to the architectural space as per the aesthetic cognition has not been done so satisfactorily.

This study, therefore, aims at prescribing compositional scope from aesthetic cognition of architecture understanding the rational function, mechanic structure, and artistic beauty by man's subject standard of judgement as per the space, the special sphere of architecture.

For the absolutes, the architectural space in this study is not approached as the spatial art with the meaning of being included the arts general, but with the meaning of intrinsic peculiarity of architecture, based both in practicality of scientific concept and arts of the aesthetic notion. In other words, the essence of architecture can be prescribed as the architectural realities as the functional, formal and symbolical space not simply the spatial art, and its real but aesthetic meaning can be cognized aesthetically.

**키워드** : 건축공간, 미학적 인식관점, 인식의 구성범주, 기능미·형식미·내용미

## 1. 서론

건축은 인간의 실용적인 활동에 대한 대표적 장르임과 동시에 인간에게 미적 형식을 부여하는 예술적인 활동에 속한다. 따라서 건축은 예술적으로 형성된 현실의 한 형태이며, 문화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 미학개념의 매우 특수한 기능적 예술에 해당한다. 특히 건축고유의 특수성을 기능성에 대한 예술로서의 건축이라는 측면으로 파악한다면, 그것은 바로 공간개념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건축 연구의 출발은 근본적으로 건축을 공간예술로서 인식하려는 미학적 태도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이제까지 주로 미학이나 예술학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졌을 뿐, 그 자체가 독립된 테마로서 다루어지지는 못했다. 또한 미학적 인식에 대한 건축공간의 학문적 접근도 만족할 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건축고유의 특수한 영역인 공간에 대해서

건축 본질의합리적 기능이나 역학적 구조, 그리고 예술적 미에 관한 전체적 파악의 관점을 설정하여 건축의 미학적 인식을 위한 구성범주를 설정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축공간에 대한 인식의 접근방법을, 건축론에서 정의되었던 예술 일반에 포함되는 의미의 공간예술로서보다는 건축의 고유성에 따르는 의미의 공간예술, 즉 기능과 형식, 그리고 내용 공간으로서의 건축적 존재계기로 의미지어 미학적 인식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에 따른 연구의 진행순서는, 건축공간에 대한 미학적 의미와 전환에 대해 살펴본 후, 인식관점을 대별하고 그에 따라 형성되는 건축공간 인식에 대한 미학적 구성범주를 규정하도록 한다.

## 2. 건축공간 인식에 대한 미학적 접근

건축공간을 미학적 인식의 대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학적 인식에 대한 근원적 의미와 그에 따른 적용관점에 관한 논의로

\* 정회원, 상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건축공간을 평가하고 규정하는 미학적 작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2.1. 미학적 인식의 의미와 전환

미학은 본래 감성적 완전성의 조건<sup>1)</sup>을 갖춘 미를 인식하는 학문, 즉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학'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미의 관념 자체가 역사적으로 변화하며, 그 용어와 의미 또한 변화되기 때문에, 그 관념을 감성학으로서의 미학으로 완전히 다룰 수는 없다. 즉, 미는 감성적인 것임과 동시에 초감성적인 것으로서 단순히 감각적 자극의 수용에 그치지 않는 고도의 정신적 활동에 속한 것이어서, 미학을 감성적 경험의 분석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또한 미학의 대상, 즉 미적 대상은 단지 그 자체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미의식을 상관자로 대상의 물질적인 존재양태뿐 아니라 현상적이고 초월적이며, 동시에 존재론적인 것으로 고찰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기준으로 체험되는 것으로만 정의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덧붙여 미학의 정의를 언어적 개념으로 모두 파악한다는 것에는 불완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학의 정의와 이해가 전달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미나 예술에 대한 자유롭고 다양한 경이적 새로움의 표현을 일의적으로 파악하려하지 않는 미학의 유보적 규정태도 또한 미학적 정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학의 정의와 이해는 감각과 정신의 전체적인 체험을 요구하는 미학의 본질적 대상과 범주, 그리고 유보적 규정태도에 의해서 개념적인 추상적 영역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학의 본질적 원리나 성격을 구체적인 정의의 속으로 도입하여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미나 예술의 본질을 인식한다는 미학의 근본적 탐구에 대해 인간 주체의 감각과 정신 모두의 특수한 존재방식을 이해하려는 이성적 활동의 효용적 측면, 또는 종합적 지식의 논리적 체계를 갖춘 인식으로서의 학문적 성립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감각자의 내관적 감성으로만 미약하게 이해되던 미에 관한 학문적 정의와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미나 예술이라는 미적 대상을 판단하는 미적 판단에서의 이성적 활동이 가지는 효용적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미적판단은 감성에 의해 주어진 자료의 구상성에 주관의 자아가 직접적으로 인식하여 판단하는 '감성적 구상성'이 유지되는 감성의 논리학으로서, 이성적 활동을 통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순수한 이론학으로서의 미학적 인식은 그 원리 규명을 위해서 미나 예술이 논리적 사유체계가 존재하는 객관적 관계로 파악해야 하며, 이성의 영위로서 냉정한 논증작업을 요구한다.

이것은 실용으로부터 벗어나 미의 본질에 대한 우리들 주체의 특수한 존재방식을 깊이 반성하려는 이성적 활동으로 의미 지을 수 있다.

이러한 미학의 정의로부터 학문적 수용태도 내지는 인식태도에 관한 의미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하나의 학문으로서 미학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으로 미나 예술에 대한 논리적 사유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부터 미학적 인식의 의미와 그 전환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 2.2. 건축공간 인식의 미학적 전환과 접근

건축은 인간의 실용적인 활동을 대표하는 장로임과 동시에 인간의 여러 가지 생활을 담기 위한 기술이나 구조, 기능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공간예술이어서 인간에게 미적형식을 부여하는 활동을 행하게 된다.

실제로, 건축에 있어서 공간은 고대 이래로 건축의 본질이 되어 왔고, 그 표현의 문제로서 공간개념이 대두되어 왔다. 건축의 의미를 실체와 실체 사이의 공허부인 공간에 있다고 정의한 라스무센(S. E. Rasmussen)<sup>2)</sup>이나 공간이 새로운 시대의 건축개념임을 주장한 겐코(K. Kengo)<sup>3)</sup>, 현대건축의 의미를 공간에 두고서 접근해야 한다고 한 宮川英二<sup>4)</sup>, 건축을 조형하는 인간의 의도는 공간에 있다고 주장한 中村吉郎<sup>5)</sup> 등의 주장은 건축의 본질개념을 공간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의미로서의 건축이론들은 건축예술의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의미 파악을 위한 미적 인식과 체계를 갖추게 된다. 건축이 다른 예술형태로부터 구분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인간을 포함하는 3차원적 표현수단인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건축의 조형적이고 구조적인 평가는 바로 건축고유의 공간적 가치로부터 의미 지워지는 것이고, 그 공간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감성적인 주관적 판단과 이성적인 객관적 논리를 통해 미적 체험을 하게 되며, 이로부터 미학적인 인식논리와 가치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즉, 미학적 의미로서의 건축의 가치는 바로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과 그 표현의 종합에 있는 것이며, 이로부터 하나의 공간예술로서의 건축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일반의 이해로서 정의되었던 공간예술로서의 건축은 이미 그 의미의 한계에 이르렀다. 과학적인 합리성에 근거한 근대건축의 이성주의 미학이 공간의 결정론적인 절대적 가치에 집중한 나머지, 미의 인식 주체인 인간과 상호 관계하여 자각적인 구축환경을 형성하려는 공시적 관점의 새로운 미적 이성이 요구되는 전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건축공간의 인식은 공간예술로서 건축을 접근하는 것에서보다는, 건축의 고유성에 따르는 의미로서의 공간예술, 즉 과학적 개념의 실용성과 미학적 개념의 예술성 모두에 근거한 의미의

1)1750년 바움가르텐(A. G. Baumgarten)의 예술적 아름다움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서 'aesthetica'에서 유래한 미학의 조건은, 미에 대한 논리로서의 감각이나 감정에 의거한 저급한 인식능력, 즉 감성적 인식능력에 따르는 규범적 완전성에 근거한다. 그 조건으로 풍부함(ubertas)과 위대함(magnitudo), 진실(veritas), 빛남(lex aesthetica), 그럴 듯함(persuasio)을 들 수 있다. 井上充夫, 建築美論, 건축미론, 임영배, 신태양, 초판, 도서출판 국제, 1994, p.89

2)Rasmussen, Steen Eiler, Experiencing Architecture, 건축예술의 체득-건축의 의장론, 윤일주, 초판, 야정문화사, 1970, p.46

3)Kuma Kengo, 건축의 흐름, 이창우, 이영, 초판, 현대건축사, 1998, p.23

4)宮川英二, 建築的 空間, 분석향, 초판, 기문당, 1986, p.91

5)中村吉郎, 건축조형의 기초, 국제편집부, 초판, 도서출판국제, 1986, p.3

공간예술로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건축고유의 본질적 특수성을 통한 미적 인식과 표현은, 주로 건축의 형태에 집중하고 있는 '미적 조건의 충족'을 내·외부 공간과의 연관성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종합적 예술의 건축을 이해함에 있어서 시각적 이해라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일 뿐 아니라 건축의 근본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건축공간을 합리적인 공학적 가치로서 접근하게 될 경우의 구조 결정적 가치로 인해 건축공간의 미적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태도로서, 건축공간에서 요구되는 인식의 미학적 의미와 접근태도이기도 한 것이다.

### 3. 건축공간에서의 미학적 인식관점

#### 3.1. 미학적 인식에 대한 본질적 관점

미학을 다양한 제학과와의 관계성에 따라 그 양상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인식방법에는 철학적 방법과 과학적 방법이 있음<sup>6)</sup>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가진 미학적 인식은, 철학적 방법이 과학적 방법에 우선하고 있다. 미학의 철학적 방법은 과거 이성주의에 따른 객관성의 입장에서는 사변적인 의미로 제한되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는 과학적 방법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의 풍부한 결실을 종합한 서로를 포함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학을 그 본질적 의미로서 인식하는 철학적 방법에는 일반 철학의 관점과는 다른 미학의 변별적인 관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형상적 환원의 절차로 파악되는 '본질직관'과 초월론적 환원의 절차로 파악되는 '초월론적 주관성'이라는 관점이다.<sup>7)</sup> 이 두 가지의 관점이 바로 미학을 인식하는 방법의 본질적 관점으로 작용한다.

##### (1) 본질직관의 실증주의적 관점

미학의 철학적 인식방법에 존재하는 본질적 관점의 첫째는 실증주의적 관점이다. '본질직관'으로 해석되는 미나 예술의 사상 그 자체에 접근하여 그 본질을 직접 도출하려는 실증주의적 태도를 의미

6) 과학은 '사실학'이고 전문학이다. 과학적 인식이란 일정한 현상적 범위에서 특정한 전제조건을 근거로 하여 사실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서, 인식 그 자체는 가치판단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작품에 대한 과학적 방법의 분석은 직접적으로 '이 작품이 아름답다'고 하는 가치판단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이에 비해서 '본질학'이고 초월론적인 철학은 현실의 사실과는 다른 존재 방식을 가지는 본질, 또는 이데아에 관한 학으로서, 과학과 같이 한정된 현상영역이 아닌 세계의 전체현상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파악하려고 한다. 따라서 전체 자체가 만들어지는 경과를 주제로 하여 세계 전체를 현상화하는 입장에 따라 가치판단을 내리게 된다. 木幡順三, 美と藝術の論理-美學入門, 미와 예술의 논리, 강순근, 초판, 집문당, 1985, pp.15-17

7) 이와 같은 본질직관은 형상적 환원의 절차로서, 그리고 초월론적 철학은 현상학적 내지 초월론적 환원의 수속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으로 특히, 후설(Edmund Husserl)의 '현상학(Phänomenologie)'의 방법과 같은 개념이다. 실제로 미학의 방법은 후설이 현상학적 방법이라는 것을 제창하기 이전에도, 미학자가 실질적으로 혹은 암묵리에 현상학적 방법을 채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학에 특히 친화성을 나타내는 철학적 방법이 바로 현상학적 방법이 된다.

한다.

실제로 미나 예술의 사상은 결코 자연물이나 일상생활 속의 도구류와 같이 사물로서의 존재방식, 즉 실재성으로서는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물의 본질적인 존재성에 따르는 정신활동인 '본질직관' 내지 '본질체관'에 따르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철학적 인식 방법의 미학이 가지는 근본적인 관점을 본질직관의 실증주의적 관점으로 규정했다.

##### (2) 초월론적 주관성의 현상학적 관점

실증주의적 관점과는 다르게 미학 인식에 본질적으로 작용하는 다른 관점은 바로 현상학적 관점이다. '초월론적 주관성에 따라 일상적인 자명성을 넘어 미에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려는 현상학적인 일종의 초월적 태도를 의미한다.

미학자는 직관된 대상의 본질을 기술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익숙하여 친하고 있는 사물과 현상으로부터 초월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인식관점이다. 실제로 미나 예술의 현상은 일상세계의 현상과는 다른 존재방식을 가진 일종의 독특한 명증성을 지니고 있다. 고유의 명증성을 지닌 대상적 의미를 구성하는 작업은 자아의 행위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즉 초월론적 주관성의 작용에 의하여 미에 대한 각각 고유의 명증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미학의 본질적 관점으로, 초월론적 주관성에 따른 현상학적 인식관점을 설정하여 미학의 변별적 관점으로 성립시켰다.

#### 3.2. 건축미학적 인식에 대한 분류관점

건축미학은 일반적으로 미학에서 예술체계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건축미학적 인식의 분류에 대한 관점을 규정하는 것은 건축예술이 예술체계 속에서 차지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에 미학에서 규정한 예술의 분류관점<sup>8)</sup>에 따라 파악되는 건축미학적 인식의 분류관점은 3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 (1) 미적 목적성

예술을 미적인 목적성에 따라 분류하면, 미적 이외의 실제적인 목적에 의해 제약되어 그 목적을 만족하는 예술이면 응용예술, 실제적인 목적을 갖지 않는 예술이면 순수예술로 구분한다.

빈델반트(W. Windelband)는 순수예술이 일상의 실용목적을 떠난 미 또는 진의 세계를 창조하려는 순수한 이론적 과학과도 같은 창조활동이라는 점에서 응용예술과 구별되는 것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응용예술은 미적 이외의 실용목적에 갖는 예술이 해당된다. 칸트는 자유미에 대해 건축의 미가 그 대상의 목적 개념, 즉 그 사물의 완전성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용미'에 지나지 않는 똑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건축미의 존재를 인정하고 것으로서의 부용미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미가 함목적성이라는 로스(A. Loos)의 사고는 근대건축의 핵심적 정의에 해당되며, 이것은 비트루비우스(M. P. Vitruvius)이래 건축론

8) 김수현, 정영철, 건축설계·의장론, 2판, 도서출판국세, 1992, pp.27-30

의 시발점이 유용성, 견고성, 미의 3대 요소 사이에 있다는 인식과 관계된다. 따라서 건축미학의 중요한 과제로 미적 형식에 관계되는 목적의 유용성 내지는 기능성에 따른 분류로서 관점 지을 수 있다.

## (2) 대상의 순수직관 형식성

예술을 감각적 대상의 순수직관 형식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을 분류의 계기로 간주하는 것에 해당된다. 회화, 조각, 건축, 공예와 같은 조형예술은 공간 속에 존재하며 시간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것이고, 음악, 문예는 모두 자체 공간을 가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다.<sup>9)</sup> 즉 공간예술과 시간예술로 구분된다.

형식성의 개념으로서 공간 형성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예술은 바로 건축이다.<sup>10)</sup> 여기에서 건축이 시간예술에 대해 공간예술로 규정되는 경우에도 두 가지 입장이 인정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입체형식과 공간구성으로 분류하는 입장으로, 건축역사의 양식적 변천에 있어서 각 입장이 충분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 근대에는 입체형식에서보다는 공간 구성에 대한 사고방식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건축에 따른 미적 감정을 분류한 페브스너(N. Pevsner)는 벽면의 취급방식과 외부전체의 취급방식, 내부의 취급방식에 따라 벽면의 취급방식이 조각가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내부의 취급방식은 공간을 문제로 하는 건축가 특유의 방법이라고 언급하여, 건축에서 공간에 대한 형식개념을 건축 고유의 독특한 특성으로 부각시켰다.

## (3) 미적 현실성

예술을 미적 현실성으로 분류하면, 예술의 존재형식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현실의 사물이나 현상을 재현적으로 묘사하는 구상 예술과 현실의 재현과 관계없는 시각적 또는 청각적 순수형식을 본질로 비구상적으로 묘사하는 추상예술로 정의된다. 회화, 조각, 문예, 연극, 영화는 구상예술에 속하고, 건축, 공예, 장식예술, 음악 등은 추상예술에 속한다. 회화나 조각이 전적으로 재현적인 예술로 규정하는 것은 일방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구상적인 예술에 속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의 자유생산적인 성격은 명확히 특징 지워진다. 즉, 회화와 조각이 자연을 재현하던 비구상적으로 묘사하던 근본적으로는 관념적인 세계라는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묘사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에 비해, 건축은 미적 객체로서 현실에 존재하는 것, 즉 예술적으로 형성된 현실로서 우리의 생활기능에 대해 공간을 형성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로부터 건축은 우리와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의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어서 다른 예술과 구별되는 현실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건축의 현실성은 예술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는 현실성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건축의 미적 현실성은 건축미학에서 자주 논쟁의 과제로 된 관점이었다.

9) 이와 함께 연극, 영화, 무용 등은 현실의 시간상에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실 공간을 가지기 때문에 '시공간 예술'로 불려야 할 것이다. 渡邊護, 예술학, 이병용, 초판, 현대미학사, 1994, p.160

10) Ibid., p.162

## 3.3. 건축공간의 인식방법에 대한 미학적 관점

건축공간은 건축의 본질에 해당되는 범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미학적 인식대상으로서의 건축공간은 건축미학적 관점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타예술 영역과 변별되었던 건축공간 고유의 특성이 인간이 생활하는 현실공간임과 동시에 예술공간이라는 존재구조에서, 건축공간을 중심으로 인식 주체와 객체 간에 성립되었던 공간 체험의 가역성에서, 그리고 건축공간 내부에 설정된 기능과 구조, 미의 대한 종합적인 경험체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미학적 인식 또한 이러한 관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건축공간 인식의 미학적 방법에는 과학적 질서에 대한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실용성에 입각한 과학적 방법과 감성적 체험에 대한 직관적이고 미적인 창조성에 입각한 예술철학<sup>11)</sup>적 방법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 특히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에는 분석적인 과학적 방법에서보다 미적인 예술철학적 방법에서 더욱 유효하다. 예술철학적 방법에 따른 건축공간의 인식관점은 크게 본질적 기능성에 따른 실증적인 경험미학적 관점과 초월론적 주관성에 따른 사변미학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 (1) 본질적 기능성의 경험미학적 관점

이 관점은 미학에서의 본질직관에 따른 미의 접근태도와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되는 건축공간의 인식관점으로 규정할 수 있다. 건축공간은 본질적으로 고유의 특성이 인간 생활의 기능성을 담는 현실공간에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로부터 미적 체험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태도로서 실증적이고 유용적인 기능의 객관성을 따르는 미학으로서 경험미학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미적 현실성의 실체적인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건축공간의 특성을 객관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분석적인 경험미학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현실영역으로서의 건축공간을 인간의 주관적인 평가대상으로 했을 경우의 불확실하고 규정불가능한 태도보다는 그 주관적 경험의 평가를 종합적인 관점과 통일적 표현으로써 정의하려는 시도가 바로 경험미학적 관점이며, 이를 통해서 건축공간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유용성과 실용성을 객관화시켜 실증적인 체계로 이해하려는 관점을 건축공간의 본질적 기능성에 대한 경험미학적 관점으로 규정하였다.

### (2) 초월론적 주관성의 사변미학적 관점

미학적 인식 대상으로서의 건축공간에 관한 다른 하나의 관점은 미학의 초월론적 주관성에 따르는 미적 태도와 같은 의미로서 정의할 수 있는 초월론적 주관성의 사변미학적 관점을 들 수 있다. 실체적 대상이라는 실증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이중구조로서 존재하는 건축공간의 예술적 특성에 대한 미적 해석을 이론적인 사변성으로부터 구하려는 미학적 태도이다.

11) 예술철학(philosophy of art)이란 철학의 한 부분으로서 예술의 본질 또는 현상에 대해서 그 원리를 고찰하는 학문을 지칭한다. 미학이나 예술학과 동일하게 해석되는 영역으로, 구체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심리학적 가치론에 의해 철학적인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데스워르나 우티츠의 입장이 여기에 속한다. 월간미술 編, 세계미술용어사전, 6판, 중앙일보사, 1996, p.288

실제로 미학적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건축공간은 일종의 창작 미학적 태도로서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건축가의 설계행위는 아직 창작되는 않은 것에 대한 이념적 공간의 시도로서, 이것은 현실공간이나 구체공간이 아닌 순수하게 구상 중인 표상공간에 해당한다. 즉, 일종의 상정된 현실공간의 사전 체험의 대상으로서 건축공간을 예술적 대상에 투영시켜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에는 객관적인 실증성에서보다는 주관적인 초월성에 입각한 사변성이 존재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적이고 철학적 방법으로 미적 의식작용의 상관성을 이론적이고 지적인 활동에서 구하는 초월론적 주관성의 사변미학적 관점이 건축공간에 존재하는 미학적 인식방법의 또 다른 하나의 관점으로 정의하였다.

## 4. 건축공간 인식의 미학적 구성범주

미학적 인식은 특별한 목적에 있어서, 미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파악을 통한 인간 존재의 주관성 탐구와 대상적 지식을 근거로 한 미에 관한 자신의 자각적 심화과정<sup>12)</sup>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미적 체험과 그 인식을 주관성의 초월론적 가치로 평가하여 이것을 다시 미적인 본질적 직관체험으로 객관화시켜 탐구하려는 것이 바로 미학적 인식에 의미가 있다.

마찬가지로 실제적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건축공간을 하나의 미적 대상으로 간주하여 주체의 초월론적인 주관성에 따라 사변적으로 판단되는 주관성의 가치를 다시 건축공간 본질의 기능적 유용성으로 객관화시켜 파악하려는 것이 바로 건축공간에 대한 미학적 인식의 의미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한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인식의 영역 내지는 구성적 범주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건축공간에 대한 미학적 인식의 구성범주를 규정하기 위한 전체적 조건으로 대상적 범위, 즉 미학적 인식의 구성범주를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살펴보겠다.

### 4.1. 미학적 인식대상의 구성범주

객체로서 실재하는 미적 대상을 주체의 주관적 감정가치로 평하여 객관적으로 환원시키는 미학의 논리적 사유체계에 대한 존재확인 과 그에 따른 인간 존재의 주관성 탐구에 대한 규정은 미학에 존재하는 인식논리에 대한 파악과 동일한 범주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미적 주체의 근원에 대해 스스로 자각을 깊게 하는 이성적 능력, 즉 객관화된 미학적 이성이 논리로서 작용하는 자기 동일성을 증명하는 과정의 기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미학적 이성은 미의 실현에 관여하는 모든 감성적 인식활동을 그대로 싸 넣을 수 있는 의미로서 包越의 理性<sup>13)</sup>이라

고 하며, 미적 대상과 그 대상의 구성계기에 포괄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로부터 미학적 인식대상의 구성범주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미학적 대상은 미적 품질을 담당하는 존재방식에 따라 자연과 예술, 그리고 기술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자연미와 예술미, 그리고 기계미라는 미적 대상으로 분류된다.<sup>14)</sup> 그리고 이 모든 미적 대상에는 공통적으로 그 구성계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형식과 내용,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형식미와 내용미, 그리고 기능미이다.

미학의 인식대상에 따른 구성계기인 기능미, 형식미, 그리고 내용미는 그 해석에 따라 각각 그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1) 자기목적성의 기능미

미적 대상인 미나 예술은 어떠한 다른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창작하고자 하는 본래의 순수한 욕구에 따른다. 즉, 예술적 행동은 그 자체에 목적을 둔 '자기 목적성'을 가진다.

자기 목적적 행위에는 어떤 목적이 따로 있다고 해도 그것은 본능적 행위같이 자명하기 않기 때문에, 연구나 관찰이라는 행위를 통해서야 비로소 분명해진다. 예술의 자기 목적적 행위가 실천적인 타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서 인간 문화의 역사 초기부터 그 자립적 측면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인정받지 못했다. 실제로 예술은 타 목적에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고, 그것이 예술의 존재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다양한 타 목적의 근저에는 예술이 예술답게 되는 것, 즉 자기 목적적인 것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미학적 구성계기인 기능미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학적 인식대상에 따른 구성계기 중에서, 기능미에 해당하는 구성범주는 바로 자기 목적적인 측면으로서 인식되는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전달구조의 형식미

예술은 본질적으로 전달을 필요로 하는 구조를 지닌다. 창작하는 사람은 창작하고 싶은 자기 목적성에 따라 창작하지만, 그 예술 작품은 타인이 감상한다. 창작가도 자신의 작품을 타인이 감상해 주기를 희망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작품을 만든다. 즉, 전달을 위한 형식의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처럼 예술은 전달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창작하는 일에서 예술가는 그 작품이 가능한 한 정당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물론 창작의 목표를 낮은 수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창작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배려를 의미한다. 이러한 배려는 오히려 창작욕을 고무시키고 그 이념을 한층 고매하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하며, 응용예술에

분에 대상과 방법 사이에는 비이성과 이성 내지는 비합리와 합리라는 서로 허용할 수 없는 대립 내지 모순이라는 간격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간격을 메우는 작업은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에 있어서의 과제였고, 그 하나의 시도가 바움가르텐의 '미학(Aesthetica)'이었다.

14)미적 대상을 실제적 대상의 유래에 따라 분류하면 천연자연 대상의 소역(자연미)과 인공적 대상의 소산(예술미와 기술미)로 나눌 수 있으며, 대상의 필연성에 본질성에 따라 분류하면 본질필연적 미(예술미)와 비본질적 미(자연미와 기능미)로 나뉜다.

12)木幡順, 『Op. Cit.』, p.15

13)包越의 理性은 객관화된 미적 이성이라고 이해된다. 미를 감각이나 욕구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의 성립은 완전히 비합리적인 근거에 의거하는 것이지만, 미학이 학문인 이상 그것은 이미 이성의 일이기 때

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응용예술이 실용 목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예술가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닌 창작에 비중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이러한 전달구조에 따른 예술의 형식적 측면으로서 인식이 가능한 영역이 생긴다면, 바로 그 형식적 측면을 미학적 대상의 구성체계 중 형식미에 대한 범주에 적용할 수 있다.

### (3) 내재적 상징의 내용미

예술의 자기목적성과 전달성이라는 이중구조는 자기목적성이 전달구조에 포함되었을 때 체험 전달이 된다는 것이지만, 예술에서 전달의 특색이 단지 체험 전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하나의 기호로서 예술가와 감상자 사이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려 해야 한다. 이러한 기호의 의미작용을 예술에서는 '내재적 상징'으로 규정한다.

미가 감성적 대상 속에 어떤 정신적 보편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미학의 입장에서 보면, 미에는 일종의 상징적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미적 상징에 대한 관찰이 가능해진다.<sup>15)</sup> 예술은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욱이 인간이 만들어낸 의미 작용, 즉 인위적인 기호이기 때문에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의도하에 만들어진 의미는 예술에서도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의 상징으로 작용한다. 초월적 상징을 인식하는 능력은 인간의 기본적 능력이지만, 특히 비감성적인 정감이나 이념적 사상을 개념화하는 일없이 생생한 사실로서 감각적 대상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재적 상징은 미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방식에 해당된다.

그러한 미학의 내재적 상징으로부터 구성체계인 내용미에 대한 적용 가능한 범주가 설정가능하며, 이를 미학적 인식에서의 내용미에 대한 범주로 설정하였다.

## 4.2. 건축공간 인식의 미학적 구성범주

미학에서의 기능미와 형식미, 그리고 내용미에 대한 범주규정은 각기 자기 목적성과 전달구조, 그리고 내재적 상징으로 규정한다면,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에도 그러한 대응적 관계로서 구성범주를 규정할 수 있다. 건축비평가 본타(J. P. Bonta)는 건축표현체계의 준거적 범주로서 건축에 내재된 논리와 규칙에 따른 기준을 제시했다.<sup>16)</sup> 그는 건축표현체계의 기준을 기능, 형식 그리고 역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역사에 초점을 맞춘 그의 접근방식은 기능과 형식에 따른 실용적 논리성과는 다르게 내적 일관성에 대한 규범적 해석에 따른 것이어서 건축표현의 상징적 연상과 관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건축적 표현 내지는 건축공간과 관련된 미학적 인식본

15) 미적 상징에 대한 미학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5가지가 있다. 1. 플라톤이나 프로티노스의 미에 대한 설은 상징의 근본 원리로 간주. 2. 칸트는 미를 도덕적 선의 상징 간주. 3. 관념론 철학에서 예술은 보편적이고 무한한 것인 이념을 유한한 존재 속에 제시. 4. 럽스 등의 감정 이입미학에서는 감각적 대상을 현실과의 관련으로부터 유리시키고 형식과 감정 내용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작용. 5. 오데브레히트의 현상학적 미학에서는 미적 명중 체험(美的明證體驗)으로서의 상징.

16) Bonta, Juan Pablo, Architecture and its Interpretation, 건축의 표현체계, 서유석, 초판, 기문당, 1992, pp.162-170

질은 기능과 형식, 그리고 상징으로 분류함으로써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건축공간에 대한 인식의 미학적 구성범주로는 기능에 대한 공간의 효용성을 기능미의 범주로, 미적 형식으로서의 공간의 현상성을 형식미의 범주로, 그리고 의미와 연상적 표현과 관계되는 공간의 상징성을 내용미의 범주로 규정할 수 있다.

### (1) 효용성의 기능미 범주

건축공간의 효용성이라는 것은 건축공간에 대한 도구적 태도, 즉 합리적인 기능공간에 대한 공리적이며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추상적 개념의 공간인식에 해당된다. 건축공간을 공리적인 도구성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는 무엇보다도 생활 기능에 적합화시키려는 목적공간이라는 평면의 기능분화를 들 수 있다. 특히 근대적인 목적의식에 따라 기능의 분화를 다양하게 전개된다.

기능에 대한 기준으로서, 모듈러 플랜닝은 공간 내에 있는 질서정연한 격자를 상정하여 공간을 고정적으로 포착하여 설계의 유효성과 공간의 정합미를 갖게 한다. 이에 따라 공간을 기능적으로 분석하고 각 공간에 대응하도록 명료하게 구분되는 공간을 조직하여 전체를 구성하는 공간의 분절화인 조닝이 성립되어, 공간은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우수한 독창적인 미학적 인식이 가능한 건축공간이 된다.

그러한 기능적인 미의 표현은 필요에 따라서 가동칸막이를 사용하여 대응도로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간개념으로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기능요구에 대응하여 공간기능의 시간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효율공간의 가변성을 확보한다. 미스(Mies van der Rohe)가 추구하는 고도의 추상성을 표현한 투명적 공간이 해당된다.

### (2) 현상성의 형식미 범주

건축공간을 미적 대상으로 인식할 때, 건축공간의 형식미는 관찰자 감성의 시각적이고 형태적인 감각적 현상에 국한된 것에서보다는 공간의 형식과 그 전달내용이 결합된 광의의 현상성에서 그 미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은 대상의 외견이나 형태에 직관적으로 미가 표현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적절한 감성적 계기를 매개로 환원된 현상성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상하는 가치로서의 미는 모든 가치를 자기의 내용계기로서 포함하고 있는 형식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 계기 중에서도 대상의 형식미로서 파악되는 형식보다는 자율적 가치계기로서 파악될 수 있는 형식이 해당된다. 즉, 소재적인 제가치를 포함하는 미적 가치의 작용이 바로 형식으로 현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하는 가치로서의 형식미의 범주 정의가 건축공간에서는 물리적인 영역으로 한정되는 것에서보다는 공간내의 인간존재와 존재간에 성립되는 공간적 관계성, 즉 공간의 현상적 가치에서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건축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건축공간을 대하는 관찰자의 주체적 존재양태이다. 실용적, 지각적, 실존적, 인식적, 상징적 건축공간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은 관찰자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이라는 것은 주체라는 자아공간을 실존적인 매개로 체험되는 것이며, 이러한 건축공간과 자아공간의 만남 속에 건축의 미적 공간체험이 성립되는 것이

다.17) 건축을 공간 조직과 관찰자의 지각적 동일화를 의미하는 즉, 자아공간을 매개로 한 실존적인 현상성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간을 미학적 인식범주로서 동일화시키려는 과정을 보인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 건축공간 인식의 미학적인 범주로서의 형식미는 바로 건축공간에 실존적인 현상성을 통해서 영역지어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상징성의 내용미 범주

건축공간의 상징성이라는 것은 건축공간에서 전달하려는 의미나 기호로서도 설명 가능하지만, 미학적 인식의 범주로서는 이와 함께 초월적 공간에 대한 상징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공간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없으면 안 된다. 건축적 표현은 내적 생명의 표현, 즉 인간 자신의 생명력의 표현이며 인간의 의식이 진화하는 모습의 하나이다. 따라서 건축적 공간은 인간의식의 하나의 실재물로서 발견되는 것이다.

만약 정신의 다층성을 건축공간으로 재표현하고, 그 중앙에 가장 초월적인 사고가 가능하면서 성스러운 공간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건축의 관념에는 항상 정신적인 것으로 건축을 파악하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고인 초월적 공간인식이 포함되는 것이다. 발달된 기술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듯이 그에 대한 정신세계의 공간적 표현에 있어서도 보편성이 추구되기 위해서는 정신세계의 확장과 깊이라는 이면성이 고려된 건축 속의 건축이라고 하는 깊이 쪽에 관계하는 것이다. 신비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깊은 인식을 통하여 건축의 정신성에 접근하는 것은 새로운 건축의 상을 출현시키는 것에 해당된다.

건축적 상징의 의미는 공간에 있어서 보다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영역이고 이러한 전달을 통한 건축공간의 의미 내용에 상징적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즉, 건축공간은 바로 공간을 통해서 상징되는 의미가 바로 내용적 미의 범주를 확보시키는 것으로 규정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미학적 인식의 대상으로서 파악한 건축공간의 구성범주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감성적 완전성의 조건을 갖춘 미를 인식하는 학문인 미학에는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가치 모두의 측면에서 파악해야 하는 포괄적 이성이라는 논리적 사유체계가 존재한다.

둘째, 논리적 사유체계를 가진 미학의 인식방법에 대한 관점은 본질직관의 실증주의적 관점과 초월론적 주관성의 현상학적 관점으로 규정되며, 이에 대한 건축공간의 인식방법에 따른 미학적 관점은 본질적 기능성의 경험미학적 관점과 초월론적 주관성의 사변미학적 관점으로 규정된다.

셋째, 미학의 인식대상에 따른 구성계기로는 기능미, 형식미, 그리고 내용미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구성범주는 각 구성계기에 따라 자

기목적성의 기능미, 전달구조의 형식미, 그리고 내재적 상징의 내용미로 정의된다. 그에 대응하는 건축공간 인식의 미학적 구성범주는 각각 효용성의 기능미, 현상성의 형식미, 그리고 상징성의 내용미를 분류 정의된다. 대응적 상관관계에 따른 미학적 인식대상으로서의 미와 건축공간에 대한 구성범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美學	構成範疇	建築美學	
美 / 藝術	自己目的性 미적 창작에 대한 본래의 순수한 욕구내포적 기능가치	機能美 範疇	效用性 건축공간 본질의 기능성에 대한 다른 미학적 인식
	傳達構造 자기목적성의 기능적 가치를 전달하려는 형식적 인식가치	形式美 範疇	現像性 건축공간의 인간 실존에 따른 현상적 가치로서 파악되는 형식
	內在的 象徵 예술적 기호의 의미체계를 통해서 내적인 미의 가치표현	內容美 範疇	象徵性 의식의 발현체로서의 건축공간이 상징하는 내용적 의미
			建築

참고문헌

1. 김성호, 현대건축사고론, 초판, 미진사, 서울, 1997
2. 김수현, 정영철, 건축설계·의장론, 2판, 도서출판국제, 1992
3.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3rd ed., Thames & Hudson, London, 1992
4. Giedion, Sigfried, Space, Time and Architecture: The Growth of a New Tradition, 5th ed., Harvard Univ. Press, Cambridge, 1967
5. Bonta, Juan Pablo, Architecture and its Interpretation, 건축의 표현체계, 서유석, 초판, 기문당, 1992
6. Joedicke, Jürgen, 건축의 공간과 형태, 윤재희, 초판, 세진사, 서울, 1995
7. Kuma Kengo, 건축의 흐름, 이창우, 이영, 초판, 현대건축사, 1998
8. Rasmussen, Steen Eiler, Experiencing Architecture, 건축예술의 체득-건축 의장론, 윤일주, 초판, 야정문화사, 1970
9. Van de Ven, Cornelis, Space in Architecture, 건축공간론, 정진원, 고성룡, 초판, 기문당, 서울, 1988
10. 宮川英二, 建築的 空間, 문석창, 초판, 기문당, 1986
11. 渡邊 護, 예술학, 이병용, 초판, 현대미학사, 1994
12. 木幡順三, 美と藝術の論理-美學入門, 미와 예술의 논리, 강순근, 초판, 집문당, 1995
13. 上松祐二, 건축공간론, 국제편집부, 초판, 도서출판국제, 1987
14. 井上充夫, 建築美論, 건축미론, 임영배, 신태양, 초판, 도서출판국제, 1994
15. 中村吉郎, 건축조형의 기초, 국제편집부, 초판, 도서출판국제, 1986
16. 이용재,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과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98.12

<접수 : 1999. 8. 6>

17) 上松祐二, 건축공간론, 국제편집부, 초판, 도서출판국제, 1987, p.116